

<2004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에 있어서 ^{지난}심그러운 5월 한달은 환희가 넘치는 나날이었습니다. 기금모금<Fund-Raising>과 친구만들기<Friend-Raising>를 동시에 이루어낸 달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한 100인 기부 릴레이가 바로 그 뜻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수단입니다. 100인의 이끔이들로 시작해서 매일 한사람이 다른 한사람에게 바톤을 넘기는 릴레이를 통해 내가 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것으로 참여자 전원이 모금활동가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사회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는 아주 척박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기부의 권유가 없었던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합니다. 기부의 권유는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에 한국여성재단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나눔의 축제인 기부 릴레이가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도 기부 릴레이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와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에 필수적인 인력으로서의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새날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2300여명 참여로 1억3천여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기금모금은 금년도 100인 기부 릴레이에서 마련된 기부금을 씨앗돈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새날기금>은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추진하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국내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일들을 공모를 통해 지

원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특히 관심하는 바는 능력이 있으되 재정
력 부족으로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에 새날기금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금년도 100인 이끔이들은 여성장관전원, 전문직여성지도자들, 여
성기업인들,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남녀인사들, 예능인들이었습니
다.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의원 당선 6개월 이내의 기부행위가 금
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원들은 세비 1%나눔에 적극 참
여하여 주셨습니다. 5월 한달 내내 기부릴레이의 나눔의 축제의 활
기를 더해주기 위해 방송사^가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제단의 실무자들의 지칠줄 모르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축제의 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경제적 불황으로 기부자의 평균 기
부액은 감소했으나 참가자수는 44% 증가했고 31일간 완주율도 배
로 늘어났는가 하면 일반 참여자들의 열의가 뜨거웠던 것으로 미루
어 내년도에는 보다 큰 축제를 예상하게 하여 줍니다. ^{해당 기부자들에게}
^{내일이 더욱 다져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4년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글을 통해 우
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